

《譯語類解·補》 상업어휘 연구*

강용중**

◁ 목 차 ▷

- I. 서론
 - II. 연구범위와 방법
 - III. 《譯語類解·補》 상업어휘의 구성과 전승관계
 - IV. 《譯語類解·補》 상업어휘 풀이
 - V. 시용본 《譯語類解·補》 사전
 - VI. 결어
-

I. 서론

조선시대 역학서는 크게 회화류, 음운류, 어휘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회화류에는 《老乞大》, 《朴通事》 등이 있고, 음운류에는 《四聲通解》, 《四聲通考》 등이 있으며, 어휘류로는 《譯語類解》 등과 같은 분류어휘집이 있다. 이들 서적들은 대부분이 관변학자나 사역원과 같은 국립 역학기구에서 간행된 것들로 중국의 북방 관화를 목표언어로 설정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상의 자료들은 근대 중기 이후 중국어 구어 발전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휘류 역학서는 그간 회화류, 음운류 역학서에 비해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의 연구가 문법이나 음운변화에 치우쳐진 경향을 반영하기도 하려니와 어휘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내주고 있다. 그러나 1690년 현전하는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413-B00029).

**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선임연구원

최고(最古)의 북방 관화 분류어휘 사전인 《譯語類解》가 출간된 이래로 8종 이상의 사전이 지속적으로 출간되어 중원의 언어 변화를 반영하며 회화서와 독특한 보족관계를 이루며 발전해 온 사실에 주목하는 연구자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필자는 근년 조선시대 유해류 역학서¹⁾를 연구 주제로 설정하고 그 중의 상업어휘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상업어휘는 명청시기의 변화하는 상업상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업관계를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유해류 역학서에 반영된 상업관련 어휘들은 《老乞大》의 제 판본과도 적절히 연관되어 마치 하나의 시리즈 교재와도 같은 역할을 해왔다.

이 글은 《譯語類解》 간행 이후 85년 만에 보충된 《譯語類解·補》의 상업어휘를 연구한다.²⁾ 《譯語類解》에 실린 상업어휘와 《譯語類解·補》에 실린 상업어휘를 하나로 묶어 살핀다면 적어도 17~8세기 중국의 관화에 쓰인 상업어휘의 전반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도 있으며, 어떠한 측면에서 보충이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 중국어에 상용되지 않는 몇몇 어휘들에 대해 의미를 풀이하고자 한다. 5장에는 《譯語類解·補》 買賣門에 수록된 전체 어휘를 우리말로 풀이하고 해당 예문을 제시했다.

II. 연구범위와 방법

본 논문에서 다루는 상업용어는 1775년 간행된 《譯語類解·補》의 ‘買賣’³⁾에 수록된 44개 어휘이다. 기실 《譯語類解》 간행 이후 《譯語類解·補》가 간행되기까지 비록 중국어 관화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유해류 역학서가 더 있다.

- 1) 회화류 역학서와 짝을 이루어 사용되던 중국어 학습용 대역 분류어휘집으로 볼 수 있다.
- 2) 《譯語類解》와 《譯語類解·補》의 간행과 상관 서지사항 등은 姜勇仲 《譯語類解》 ‘買賣門 商業語彙의 분류와 풀이》(《中國文學研究》 2010, Vol.41) 참조.
- 3) 《譯語類解》와 《譯語類解·補》의 분류체계는 아래와 같이 동일하다.
 [卷上] 天文 時令 氣候 地理 宮闕 官府 公式 官職 祭祀 城郭 橋梁 學校 科舉 屋宅 教閱 軍器 田漁 館驛 倉庫 寺觀 尊卑 人品 敬重 罵辱 身體 孕產 氣息 動靜 禮度 婚娶 喪葬 服飾 梳洗 食餌 親屬 宴享 疾病 醫藥 卜筮 算數 爭訟 刑獄 買賣
 [卷下] 珍寶 蠶桑 織造 裁縫 田農 禾穀 菜蔬 器具 鞍轡 舟船 車輛 技戲 飛禽 走獸 昆蟲 水族 花草 樹木 瑣說
 본고에서 다루는 상업어휘는 卷上の 마지막인 ‘買賣’에 수록된 어휘를 말한다.

- ① 《譯語類解》 : 1690년(숙종 16)
- ② 《同文類解》 : 1748년(영조 24)
- ③ 《蒙語類解》 : 1768년(영조 44)
- ④ 《譯語類解·補》 : 1775년(영조 51)

즉 1775년 《譯語類解·補》가 나오기 이전에 만주어 대역어휘집 《同文類解》와 몽골어 대역어휘집 《蒙語類解》가 간행된 것이다. 얼핏 보면 이들 간에는 영향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첫째 이들이 동일한 기구인 사역원의 역관들이 편찬했다는 점, 둘째 이들은 각기 다른 語種을 다루지만 표제어로 중국어 관화를 통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공통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이후 발간된 아래의 유해류 역학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⑤ 《方言集釋》 : 1778년(정조 2)
- ⑥ 《漢清文鑑》 : 1779년(정조 3)
- ⑦ 《倭語類解》 : 1780년대 초로 추정
- ⑧ 《蒙語類解·補編》 : 1790년(정조 14)
- ⑨ 《華語類抄》 : 1883년(고종 20)

이상의 9종의 유해류 역학서에 보이는 표제어를 통시적으로 배열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자의 핵심적인 연구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譯語類解·補》에 보이는 상언어휘를 전후관계에 놓인 역학서의 그것과 대비하여 살필 것이다. 이러한 대비는 우선 동일한 범주인 상언관련어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또는 어떤 것이 소실되고 어떤 것이 생성되었는지, 나아가 상언어휘의 전체적인 구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할 것이다. 물론 이 작업은 판종 간의 비교이므로 각기 다른 판종 사이의 영향관계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언어휘의 풀이는 《現代漢語規範詞典》(현대)와 《漢語大詞典》(고대 및 근대 등)를 기본 辭書로 하고 보조적으로 'CCL(北京大學 漢語語言學研究中心) 고대중국어 데이터 베이스'⁴⁾를 사용해 용례의 사용 시기나 문헌 등의 정보를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44개 어휘의 현대어 풀이와 그 의미에 해당하는 예문을 검색하여

4)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index.jsp?dir=gudai 참조.

‘시용본 사전’을 만들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예문은 시기적으로 제일 빠른 것을 위주로 수록했으며, 《漢語大詞典》 등의 공구서의 수록 여부 등도 동시에 언급했다.

본고에서 사용한 《譯語類解·補》는 1974년 亞細亞文化社에서 영인한 1775년 刊本이다.

Ⅲ. 《譯語類解·補》 상업어휘의 구성과 전승관계

1. 《譯語類解·補》 상업어휘의 구성

《譯語類解·補》에 수록된 상업어휘의 구성을 소개하기 이전에 《譯語類解》의 그것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買主	賣主	夥計	牙子	大市	街上	角頭
東館裡	西館裡	集	趕集(或云‘看場’)	鋪子	雜貨鋪	店房
飯店	酒店	油房	糖房	開鋪	肉案	青帘(一云‘酒望子’)
幌子	貨車	利家(一云‘鋪家’)	老杭家	老江湖	搖貨郎	
倡價	講價	照市價	照行市	發賣	收買	成交
對換	將就	一倒兩斷	拖欠	轉錢	折本	虧了
不肯	打倒(一云‘悔交’)	退換(一云‘倒裝’)	不濟事	地頭的		
真的	假的	絕高	常行的	稀罕	不稀罕	廣(或云‘廣多’)
稅契	稅錢	牙錢				

이상을 개괄하면 표제어로 56개가 있으며 ‘或云’ 또는 ‘一云’이라고 표시한 동의어를 더하면 62개가 된다. 이들 어휘를 분류항목으로 배열하면 아래의 12개로 나눌 수 있다.

- A: 상업행위에 종사하는 사람
- B: 시장
- C: 점포의 유형과 客商이 묵는 숙소
- D: 상업 장소를 알리거나 선전을 하는 표식

- E: 상업용 운반 수레
- F: 가격
- G: 상거래
- H: 금전 이윤
- I: 거래
- J: 상품의 산지
- K: 상품에 대한 평가
- L: 세금이나 중개료

분류항목에서 보듯 상업을 둘러싼 제 범위들이 정연하게 분포되어있다. 그러나 필경 어휘의 총 수목이나 범위에서 현저히 부족함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보완 혹은 새로운 어휘의 보충의 필요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譯語類解·補》의 출간 계기가 바로 이러한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음은 《譯語類解·補》에 수록된 상업어휘들이다.

買賣人	做買賣	噯噯賣	開帳	平常的	上眼的
上用的	直不直	價直	對半分開	添上	討添
一併	換換	狠好	剩的	欠的	一倍
大發財	湊斂	兌銀子	改兌	補秤	賒帳
流水帳	虧本	完帳	另補	吮喫	財主
本錢	掙錢	文契	借契	債樁	討債
還當	子母債	月利錢	當舖	稅上	收稅
上稅	雇了				

이들 어휘의 총 수목은 44개이다. 이것과 《譯語類解》의 62개를 더하면 100여개에 이르는 상업어휘가 구성되며 이로써 기본적인 수요에 부응하게 되었을 것이다.

위의 표제어들을 우선 언어학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하겠다.⁵⁾

5) 본고가 비록 중국어사의 견지에서 각 표제어의 특징을 다루지만, 언어접촉의 관점에서 이들 어휘가 우리말에 전승되고 있는가하는 문제도 흥미로운 주제이다. 《譯語類解》의 경우 ‘雜貨’, ‘店房’, ‘飯店’, ‘酒店’, ‘市價’, ‘發賣’, ‘收買’, ‘稀罕’ 등의 표제어가 현대 우리말에 남아 있지만, 《譯語類解·補》의 상업어휘 중 우리말에 전해지고 있는 것은 ‘本錢’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當舖’는 ‘典當舖’라고 말하며, ‘湊斂’ 대신 ‘出斂’이라는 말을 쓴다.

첫째, 일부 표제어는 단어가 아니라 구이다. 특히 지칭화 표지의 관형격 조사 ‘~的’의 형식이 다수 보인다.

上眼的 上用的 平常的 剩的 欠的

둘째 소수이기는 하지만 정반의문형 ‘直不直’, 중첩형 ‘換換’, 동보식 구(句) ‘添上’, 완료표지 ‘了’를 이용한 ‘雇了’ 등의 다양한 어법형식도 있다.

다음으로 비교적 특수한 경우로 의미상 원래는 일반어휘이나 특정한 경우 상업어휘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이다.

平常的 上眼的 一併 換換 狠好 剩的
一倍 另補

이상의 표제어들은 다 구어에서 일반적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상업관계에 쓰이는 경우 특수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상의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선 당시 사역원의 편찬자들이 현대의 單語(詞)와 句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상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과 지칭들이 하나의 틀 속에서 배열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언어적 표현을 수집 정리했을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현실 언어 속에 約定俗成하에 쓰이는 표현을 그대로 채록했을 것이다. 유해류 역학서의 목표어는 관화 그것도 철저히 구어화된 용법이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에서 보이는 표제어들은 여기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언어 외적인 측면에서 볼 때 《譯語類解·補》에 수록된 표제어의 특징은 《譯語類解》의 그것과 비교에서 드러난다. 즉 《譯語類解》에 보이지 않는 ‘典當’류의 어휘들이 많이 보충되었다는 점이다. 《譯語類解·補》가 《譯語類解》에 수록되지 않은 어휘를 보충한 것이라면 《譯語類解》에 미수록된 어휘들이 있다는 말이 된다. 그것이 바로 아래에서 보는 ‘典當’류의 어휘들이다.

즉 상대적으로 《譯語類解·補》의 상업어휘가 우리말에 전승되고 있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債椿 討債 還當 子母債 月利錢 當舖

이들 ‘典當’류의 어휘는 이미 《譯語類解·補》 이전에 간행된 《同文類解》나 《蒙語類解》 등에 수록되어 판본 간의 영향관계도 설정할 수 있다.

이상에 보이는 《譯語類解·補》의 상업어휘의 구성에서 다음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단어가 아닌 구의 형태로 출현한 표제어들을 상업어휘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현대 상업어휘는 전문용어로 명사(특정 개념을 나타냄)나 동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譯語類解·補》에 나타난 ‘~的’로 구성된 표제어들은 일견 상업용어로 분류하기에 석연하지 않은 구석이 있다. 그러나 현대의 전문적인 상업용어와 《譯語類解·補》에 실린 어휘들은 일정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현대의 그것이 상당히 정련하고 상업 실체에 쓰이는 것들이나, 《譯語類解·補》의 그것은 너무나도 통속적이며 구어적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譯語類解·補》의 편찬자들이 규정한 상업어휘란 당시 북방 구어에 보이는 상업관련 어휘를 넓은 개념으로 본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본 논문의 5장에 수록한 매 표제어의 구체적인 의미를 본다면 어느 하나 상업을 둘러싼 여러 상황이나 개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를 사회언어학적으로 분석한다면 당시의 구어와 분류어휘의 관계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譯語類解》를 增補한 《譯語類解·補》의 상업관련 어휘들이 당시의 중국 상업 상황의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간략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典當’류의 어휘들은 《譯語類解》에 보이지 않으며 《方言集釋》과 《漢清文鑑》에는 [買賣]門과 별도로 각각 [借貸], [當借]門으로 독립시켜 수록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典當’류의 새로운 수록과정과 이후 판본의 전승관계는 당시 사역원의 분류어휘 편찬과정에서 복잡해진 중국의 상업어휘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그밖에도 명대 후기에 정착한 銀本位制와 관련된 표제어들이 《譯語類解·補》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예를 들면 ‘兌銀子’, ‘改兌’, ‘補秤’ 등이 그것이다. 《譯語類解·補》의 편찬시기(1775년)와 관련시켜 본다면 이들 표제어들이 보충된 것은 중국 상업사의 발전과 상당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앞의 논의를 종합하면 《譯語類解·補》의 상업관련 어휘들은 표제어의 형식에 있어서 약간의 이론의 여지는 있으나, 내용적 측면과 새로운 어휘의 증보과정은 분명 관련성을 가지며 구어적 성격이 강한 당시의 상업관련 표제어를 수록했다고 단정할 수 있다.

2. 《譯語類解·補》 상업어휘의 판본 간 전승관계

《譯語類解·補》에 수록된 상업어휘의 전승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일차적으로 판본 간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일차적 대비는 일견 언어 사실과는 무관한 형식적인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나 그 배후에는 언어적인 사실이 전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앞 시대의 판본에 나온 어휘라 하더라도 현재 쓰이지 않으면 절대 수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유해류 역학서 간의 대비가 언어학적으로도 유효함을 입증한다고 하겠다.

2장에서 제시한 ①~⑨는 각 판본을 나타낸다. 우선 《譯語類解·補》에 수록된 상업어휘 중 전대에 이미 출현한 경우를 보기로 하자. 이 경우 대전제는 《譯語類解》와 중복된 것은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譯語類解·補》가 《譯語類解》를 보충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흥미롭고 특이한 점이 있는데 총 수록 어휘 44개 중 25%에 해당하는 11개가 《同文類解》와 《蒙語類解》에 이미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듯 《同文類解》는 漢滿 분류어휘 사전이다. 그러므로 이 《同文類解》는 清代에 유행한 자료에 근거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로 미루어 그 표제어는 실제 당시 중국어 관화 구어어휘를 표제어로 삼았을 것이다. 한편 《蒙語類解》는 조선 정부에서 특별한 고려로 만든 漢蒙 분류 사전이다. 이점으로 볼 때 당시 사역원에서는 그 표제어인 관화 구어어휘를 《同文類解》의 그것에서 가져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譯語類解》를 증보하며 《同文類解》를 참고한 것은 매우 자연스런 것이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11개의 표제어도 내부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즉 《同文類解》와 《蒙語類解》에서 가져왔으나 《譯語類解·補》에만 보이고 이후의 판본에 보이지 않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그것이다. 다음은 분류이다.

1) 《同文類解》, 《蒙語類解》, 《譯語類解·補》에만 보이는 것.

雇了: 同文183⁶⁾, 蒙語150, 譯補330
對半分開: 同文183, 同文183, 譯補328
一倍: 同文182, 蒙語150, 譯補328
做買賣: 同文182, 蒙語149, 譯補328
價直⁷⁾: 同文182, 蒙語149, 譯補328

2) 《同文類解》, 《蒙語類解》, 《譯語類解·補》, 《方言集釋》에 보이는 것.

本錢: 同文183, 蒙語150, 譯補329, 方言(買賣21-2)
月利錢: 同文183, 蒙語150, 譯補329, 方言(借貸22-1)
還當: 同文184, 蒙語151, 譯補329, 方言(借貸22-1)
文契⁸⁾: 同文184, 蒙語151, 譯補329, 方言(借貸22-1)

3) 《同文類解》, 《蒙語類解》, 《譯語類解·補》, 《方言集釋》, 《華語類抄》에 보이는 것.

補秤⁹⁾: 同文183, 蒙語150, 譯補329, 方言(買賣21-1), 華語40-2

4) 《同文類解》, 《蒙語類解》, 《譯語類解·補》, 《方言集釋》, 《漢清文鑑》, 《華語類抄》에 다 보이는 것.

當舖: 同文184, 蒙語151, 譯補329, 方言(借貸22-1), 漢清(當舖63B), 華語40-2

위에서 보듯 이상 11개 표제어는 다 《同文類解》에서 왔으며 이후 각 판본에 전

6) 각 항의 이 숫자는 해당 자료의 쪽 수입.

7) 《漢清文鑑》(漢清-貿易-則-16B)에는 이 항목이 '價值相等'으로 수정되어 있다.

8) 《漢清文鑑》(漢清-貿易-則-15B)에는 이 항목이 '文約'으로 수정되어 있다.

9) 《同文類解》, 《蒙語類解》에서는 '補錠'으로 되어 있으나 동의어로 보아야 한다.

승됨을 볼 수 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실에는 언어적인 배경이 있다는 점이다.

그 다음 유형은 오로지 《譯語類解·補》만 보이는 것들이다, 총 9개가 있다.

改兌: (譯補329)
 買賣人: (譯補328)
 吮吃: (譯補329)
 上眼的: (譯補328)
 一併: (譯補328)
 直不直: (譯補328)
 添上: (譯補328)
 欠的: (譯補328)
 狠好: (譯補328)

이들 중 앞의 세 표제어를 제외하고는 이미 소개했듯이 다 지칭화 또는 구로 된 것들이다.

마지막 유형은 《譯語類解·補》에 처음 보여 다른 판본에 계승된 것들이다. 총 24개 이다. 특이한 점은 이 모두가 《方言集釋》에 그대로 수록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方言集釋》이 직접적으로 《譯語類解·補》을 저본으로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선 9종의 판본 중 《譯語類解·補》와 《方言集釋》에만 보이는 것은 아래의 19개가 있다.

流水帳¹⁰⁾: 譯補329, 方言(買賣21-1)
 完帳¹¹⁾: 譯補329, 方言(買賣21-1)
 剩的¹²⁾: 譯補328, 方言(買賣21-2)
 噯噯¹³⁾賣: 譯補328, 方言(買賣20-2)
 大發財: 譯補328, 方言(買賣21-2)

10) 《方言集釋》에 이 '帳'은 '賬'으로 수정됨.

11) 상동.

12) 《方言集釋》에 이 '的'는 '下'로 수정됨.

13) 《方言集釋》에 이 '噯'는 '呔'로 수정됨.

另補: 譯補329, 方言(買賣21-2)
上稅: 譯補330, 方言(買賣21-2)
稅上: 譯補330, 方言(買賣21-2)
收稅: 譯補330, 方言(買賣21-2)
子母債: 譯補329, 方言(買賣21-1)
財主: 譯補329, 方言(借貸22-1)
湊斂: 譯補328, 方言(買賣21-2)
借契: 譯補329, 方言(借貸22-1)
兌銀子: 譯補329, 方言(買賣21-1)
討債: 譯補329, 方言(借貸22-1)
討添: 譯補328, 方言(買賣21-2)
換換: 譯補328, 方言(買賣21-1)
虧本: 譯補329, 方言(買賣21-1)
掙錢: 譯補329, 方言(買賣21-2)

이상 19개의 표제어가 이후의 판본에 왜 전승되지 못했는지는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다음으로 1개의 표제어가 《譯語類解·補》와 《方言集釋》에 이어 《蒙語類解補編》에 보인다.

債椿: 譯補329, 方言(借貸22-1), 蒙補268

마지막으로 《譯語類解·補》와 《方言集釋》에 보이며 19세기 간본 《華語類抄》(1883년)에도 수록된 어휘는 아래의 4개이다.

開帳¹⁴): 譯補328, 方言(買賣21-1), 華語40-1
上用的: 譯補328, 方言(買賣20-2), 華語40-2
平常的: 譯補328, 方言(買賣20-2), 華語40-2
賒帳¹⁵): 譯補329, 方言(買賣21-1), 華語40-2

이 네 표제어는 적어도 19세기 말까지 전승되어 쓰였다.

14) 《方言集釋》에 이 '帳'은 '賬'으로 수정됨.

15) 《方言集釋》에 이 '帳'은 '賬'으로 수정됨.

앞의 판본 간 전승관계를 통해 9종의 유해류 역학서 간의 영향관계를 볼 수 있다.

IV. 《譯語類解·補》 상업어휘 풀이

본 장에서는 몇몇 표제어의 의미를 풀이하기로 한다. 주로 용례를 찾을 수 없거나 《漢語大詞典》 등과 같은 대형 공구서에 나오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삼았다.

1. ‘改兌’는 3장에서 보았듯 조선시대 유해류 역학서 중 《譯語類解·補》에만 나온다. ‘改兌’의 일반적인 의미는 明代 漕運(국가가 조세로 징수한 곡물 등을 선박으로 운송하던 제도)의 주요 방식으로 개태운(改兌運) 또는 長運이라고도 했다. 개태운이란 관군이 전담한 조운의 한 방식이다.¹⁶⁾ 그리고 이 제도는 청대까지 시행되었다. 《漢語大詞典》의 해당 조에도 이 명대의 조운 방식을 들었다.¹⁷⁾

그러나 《譯語類解·補》에 수록한 ‘改兌’의 풀이는 이 조운 방식과는 관련이 없는 ‘긋쳐드다(고쳐 달다)’이다. 그러므로 여기의 ‘改兌’는 또 다른 의미로 보아야 한다.

한편 ‘改兌’의 용례를 CCL에서 검색한 결과 조운과 관련된 예문만 보였다. 그러므로 《譯語類解·補》의 풀이가 이 단어 해석의 유일한 단서가 된다. 우선 ‘긋쳐드다(고쳐 달다)’에서 동사 ‘兌’가 ‘드다(달다)’라고 풀이되었으므로 원래 의미인 ‘更換’이 아닌 계량의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은본위제가 시행되던 시기에 금이나 은을 천평(저울)으로 다는 것을 ‘兌’라고 했다. 즉 兌銀子라 하면 ‘은의 무게를 달다’ 혹은 ‘거래 금액을 은으로 메긴다’ 등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 마침 《譯語類解·補》에는 ‘兌銀子’가 표제어로 올라와 있으며 ‘은드다(銀子の 무게를 달다)’로 풀이한 것으로

16) 《明史》 권79, 〈食貨三〉: “至成化七年(1471), 乃有改兌之議。時應天巡撫滕昭令運軍赴江南水次交兌, 加耗外, 複石增米一鬥爲渡江費。後數年, 帝乃命淮、徐、臨、德四倉支運七十萬石之米, 悉改水次交兌。由是悉變爲改兌, 而官軍長運遂爲定制。” 이 부분의 번역은 박원호, 《명사식화지역주》, 소명출판사, 2008 참조.

17) 改變的兌運法。明宣德年間所行兌運法規定: 江南糧戶運糧到瓜洲、淮安、河南糧戶到小灘, 山東糧戶到濟寧等倉交兌。施行後官軍既多勒索, 糧戶仍須自運。成化七年應天巡撫滕昭命令運軍到江南水次兌運: 十年, 原交淮、徐、臨、德四倉支運漕糧, 也改在水次交兌, 稱爲“改兌”。又稱長運。

보아 '改兌'의 '兌'가 은의 무게를 단다는 의미의 동사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¹⁸⁾

그러므로 '改兌'의 의미는 銀子의 중량을 고쳐 다는 것이다. 다만 '改兌'를 직접 사용한 용례는 각종 사전이나 CCL에도 보이지 않아 문헌의 예로 방증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2. '對半分開'는 3장에서 보았듯 《同文類解》, 《蒙語類解》, 《譯語類解·補》에만 보인다. 우선 《譯語類解·補》의 풀이에는 '분반하다'라고 했고 《蒙語類解》에서는 '分半'이라고 해 '반으로 나누다'라는 의미로 확정할 수 있다.

《漢語大詞典》에는 표제어로 올라와 있지 않으며 《老乞大》의 4종 판본에도 보이지 않는다. CCL에서 검색한 용례는 아래의 한 문장뿐이다.

家事對半分開, 各自度日。【13明/小說/二刻拍案驚奇(上)】¹⁹⁾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어 각자 살아간다.)

이 용례를 통해 '對半分開'가 명대의 소설에도 사용되었고 주로 재산이나 이익 등을 절반 씩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의 용례는 주로 중국 대륙보다 대만에 많이 보인다. 대만 야후(<http://tw.search.yahoo.com/>)에서 검색한 결과 아래의 예문들을 발견했다.²⁰⁾

去外皮的刺, 仙人掌果對半分開. 果肉是鮮紅色的. 果汁也是鮮紅.(외피의 가시를 제거한 선인장을 절반으로 나눈다. 과육은 선홍색이고, 과즙도 역시 선홍빛이다.)

同組同學人數對半分開, 一半在樓上試飛降落傘, 另一半同學在樓下接傘. 試飛結果如何呢?(같은 조의 학생 수를 절반으로 나누어 반은 윗층에서 낙하산을 날려보고, 나머지 절반은 아래층에서 낙하산을 받도록 하자. 날려본 결과는 어땠지?)

18) 《老乞大》에도 '兌'의 이러한 용법이 보인다. “你兩家不用爭, 限十日內就照價錢數目兌銀, 斷不短少的。”

19) 이하 검은 꺾쇠로 인용한 것은 CCL에서 검색한 것임(부록참조).

20) 이상의 예문에서 對半分開는 절반(對半)으로 나누다(分開), 또는 양분(兩分)하디의 의미임이 분명해졌다.

有一組採茶人早上全體組員一起採收大坡地，下午對半分開，一半留在大坡地繼續採收，另一半去採收小坡地。(한 조의 차 따는 사람들이 아침에 전 조원이 가파른 차밭에서 차를 수확했지만, 오후에는 반반씩 나뉘어 절반은 가파른 차밭에서 계속 수확하고 나머지 절반은 좀 덜 가파른 곳으로 수확하러 갔다.)

이상의 용례를 통해 볼 때 현대중국어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嘍嘍賣’에 대한 《譯語類解·補》의 풀이는 ‘웨여판다(소리치며 또는 외치며 팔다)’이다. ‘嘍’는 감탄사로 쓰일 때에는 ‘哎’와 유사하며 동사일 때는 ‘외치다(吆喝)’로 사용된다. ‘嘍’에 대해 《康熙字典》에서는 ‘《廣韻》於霄切, 《集韻》伊消切, ㄸ音腰. 《詩·召南》: 嘍嘍草蟲. 《傳》: 嘍嘍, 聲也.’이라 했다.

《漢語大詞典》의 ‘嘍喝’에서는 ‘소리내다, 외치다(吆喝)’의 의미로 풀이하고 예문으로 宋·邵博《聞見後錄》卷三十: “歐陽公云: ‘予作《憎蠅賦》, 蠅可憎矣, 尤不堪蚊子, 自遠嘍喝來咬人也.’”(구양공이 말하기를 ‘나는 《憎蠅賦》를 지은 적이 있는데 파리는 정말 싫다. 특히 모기는 견딜 수가 없는데 멀리서 웅웅거리며 와서는 사람을 문다.’)와 《金瓶梅詞話》第七九回: “他使性兒把袍兒上身扯了一道大口子, 吃我大嘍喝, 和他罵嘍.”(그는 성질을 부리며 긴 옷을 찢어 큰 구멍을 내어 나로 하여금 큰 소리를 그에게 욕을 하게했다.) 등을 들었다. 전자는 의성어로 보이고, 후자는 ‘소리 지르다’라는 의미의 동사이다.

한편 이 표제어는 《方言集釋》에 ‘嘍吆賣’로 수정된다. ‘嘍嘍賣’와 비교하면 ‘嘍’가 ‘吆’로 바뀐 것이다. 이로써 ‘嘍嘍賣’는 시장이나 거리 혹은 난전에서 소리를 질러 호객하여 물건을 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표제어는 《漢語大詞典》 또는 CCL과 《老乞大》의 4종 판본에 보이지 않는다.

4. ‘假估’는 《譯語類解·補》의 표제어가 아닌 ‘平常的’의 풀이에 사용된 어휘이다. 그러나 ‘假估’는 현대 중국어에도 잘 사용되지 않고 《漢語大詞典》이나 CCL에도 보이지 않는다.

《譯語類解·補》의 ‘平常的’에 대한 또 다른 우리말 고어 풀이는 ‘좀것’이다. 현대 어에도 쓰이는 이 ‘좀것’은 ‘좀스럽게 생긴 물건이나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의 의

미이다.²¹⁾ 한편 ‘平常的’는 ‘일상적인’이라는 의미 이외에 상업용어로는 ‘싼 것’ 또는 ‘자질구레한 것(좀것)’으로 사용된 용례를 《老乞大》²²⁾에서 찾을 수 있었다.

夏裏繫玉鉤子，最平常的是菜玉，最貴重的是羊脂玉。(여름에 옥을 단 허리띠 중 가장 싼 것은 菜玉이고 가장 비싼 것은 羊脂玉이다.)

그리고 ‘假估’도 《老乞大》에 보인다.

這織金胸背是蘇州來的假估緞子，你還要討七兩銀子，若是南京來的清水織金緞子卻賣多少呢？(이 金胸背을 찌는 것은 소주에서 온 값싼 綢緞인데 당신은 은 자 칠 량씩이나 달라니, 만약 남경산 清水織金은 얼마에 팔려고 하겠는가?)

이 문장에서 ‘假估’는 상대적으로 남경산보다 싼 소주산 주단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고 《老乞大》의 또 다른 판본에서는 ‘草’로 되어 있어 그 의미가 ‘좀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 ‘討添’은 《漢語大詞典》과 《老乞大》에 보이지 않는다. 권위 있는 현대중국어 사전인 《現代漢語規範詞典》(語文出版社, 2004)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CCL에는 明清代의 용례는 보이지 않지만 民國時代 소설에 두 개의 문장이 있다.

你這個人呀，不能給你面子的，吃了還要討添，現在沒得喝了，等你說完，才給你喝。【15民國/小說/大清三杰(上)】(너 같은 사람에게겐 말이야 체면 따윈 살려줄 수도 없어. 마시고 나서도 더 달라고만 하는구나. 지금은 마실 수 없고 네가 다 말한 다음에야 네게 마실 것을 주겠다.)

世蕃見了金絲幕帳，也是作這般想，心上很是不足，只因不便討添，勉強收受罷了。【15民國/小說/明史演義】(嚴世蕃은 금실로 된 커튼을 보고 역시 이렇게 생각했다. 마음속으로는 아주 만족하지 못하지만 단지 더 달라고 할 수 없어 억지로 받은 것뿐이야.)

21) DAUM 국어사전 참조.

22) 이하 《老乞大》의 원문은 판본의 구분 없이 이태수(2003)의 4종 판본을 따르고 별도의 판본 표기를 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討添’은 현대 중국어 방언(浙江)에 보인다. 현재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여배우 袁立가 한 매체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她能懂得一個詞，叫做“討添”。“我們紹興話有一個詞，叫討添。媽媽小時候會說：‘吃到好吃的就好了，不要討添！’吃夠了一碗，再去搶第二碗，媽媽是會用筷子打我的。討就沒意思了。一個東西，足夠好的時候，不要再去添什麼，討什麼，來敗壞那種好。有時想想，覺得特別好。”²³⁾(그녀는 ‘討添’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고 있다. “우리 소흥에는 ‘討添’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으면 됐지 거기에서 더 구하려고 하지말아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한 그릇을 다 먹고 다시 한 그릇을 더 가로채면 어머니는 젓가락으로 저를 때리셨거든요. 더 구하려는 것 자체가 좋을 게 없지요. 한 물건이 딱 알맞을 때 다시 무얼 보태려고 하거나 더 구하려고 해서 그 좋은 것 자체를 망쳐버려서는 안되지요. 때때로 생각해 보면 아주 좋은 말 같아요.”)

이상의 용례들을 종합하면 “討添”이란 자기 몫 이상의 것(添)을 더 요구(討)한다는 말이 될 것이다. 《譯語類解·補》의 풀이에서는 ‘투정하다’라고 해 더 많은 이익을 요구하는 상행위를 비유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중국어에 상응하는 어휘로는 ‘討便宜’가 있다. 《現代漢語規範詞典》(語文出版社, 2004, 1273쪽) 해당 조목에는 ‘存心取得不應得的利益’라 풀이해 이 단어보다 더 상용되는 ‘占便宜’와 같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討便宜’의 사용 분포는 주로 上海, 南京, 寧波 등지의 吳語 지역이며²⁴⁾, 서면어에서 이미 보통화에 침투된 것으로 보인다.

V. 시용본 《譯語類解·補》 사전

본 장에서는 《譯語類解·補》의 전체 상업어휘를 《漢語大詞典》과 [CCL]로 가장 이른 용례를 찾아 현대어 풀이를 더했다. 유해류 역학서의 결정적인 단점은 예문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향후 사전의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으므로 유해류 역

23) <http://www.haibao.cn/blog/post/67032.htm>(海報時尚網) 참조.

24) 《現代漢語方言大詞典》(강소교육출판사) 3329쪽 참조.

학서의 우수한 전통을 잇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작업은 아래의 범례에 따른다.

— 범례 —

- (1) 원문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 (2) 매 단어에 한어병음을 부기한다.
- (3) 원문의 풀이는 필자의 풀이 바로 뒤에 괄호에 부기했고, 용례의 검출에서는 이 원래 의미를 기준으로 삼았다.
- (4) 예문은 《漢語大詞典》과 [CCL] 중 시기적으로 이른 것을 제시한다. 이 두 자료에 실린 내용은 원문을 철저히 대조한 것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CCL]의 각종 부호들은 편의상 검색 상태 그대로 둔다.
- (5) 한자는 일률적으로 번체로 전환한다.
- (6) 해설이 필요한 경우 각주로 처리한다.
- (7) 《漢語大詞典》이나 [CCL]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대로 밝혔다.
- (8) 표제어에 해당하는 용례를 찾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고 분량관계 상 예문의 번역은 하지 않았다.

1. 【買賣人】 mǎimàiren 장사하는 사람, 상인(홍정받치) [CCL] 押綱軍將衙官梢工等，具知鹽法，如有公然偷盜官鹽，或將貨賣，其買賣人及窩盤主人知情不告，並依前項刮鹹例，五斤已上處死。【10北宋/史書/舊五代史】金瓶梅，老乞大 등에도 보임.《漢語大詞典》에서는 老舍 《龍須溝》를 인용해 시기 늦음.

2. 【做買賣】 zuòmǎimài 매매하다, 장사하다(홍정하다)[CCL] 今有姑蘇賊人趙正欲來京做買賣。【10北宋/小說/話本選集1.BT: 宋四公大鬧禁魂張】《老乞大》 등.《漢語大詞典》에서는 元無名氏《桃花女》楔子등을 인용해 시기 늦음.

3. 【噯喫賣】 àiyàomài 소리치며 팔다(웨여프다) 미발견(제4장의 어휘풀이 참조).

4. 【開帳】 kāizhàng 가격 정하다(갑정하다) [CCL] “這裏頭托你同五科講一聲，將來開帳的時候，叫他酌量開，總算他照應我的。”魏翻勿道：“這個還要你說

嗎，不過照這篇帳，有限的幾樣東西，看上去不過二萬銀子的進出，多開上一千、八百也望得見的。【14清/小說/官場現形記(上)】馬玉龍了也不理他，喝了幾杯酒，然後把早飯吃了，說：“夥計，拿了去罷，把帳給我開來。”跑堂的說：“不用開帳，連酒席帶飯座你給四千串錢。”【14清/小說/彭公案(三)】《漢語大詞典》에서는 현대의 예만 들.

5. 【平常的】píngchángde싼 것, 흔한 것(좀것假估的)〔CCL〕夏裏繫玉鉤子，最平常的是菜玉，最貴重的是羊脂玉。【12元/口語/老乞大新釋.BT: 老乞大新釋】《漢語大詞典》에서는 직접 관련 의미 미수록.

5-1 【假估的】jiǎgūde〔CCL〕이나《漢語大詞典》에 미수록.《老乞大》에 아래의 예문이 보임. 這織金胸背是蘇州來的假估緞子，你還要討七兩銀子，若是南京來的清水織金緞子卻賣多少呢?(老新31a8)(重老25b4 / 184)(제4장의 어휘풀이 참조)

6. 【上眼的】shàngyǎnde 마음에 드는, 눈에 찬 것(눈에촌것)《漢語大詞典》에서는《二刻拍案驚奇》卷一：“買的多不在行，伸伸舌，搖搖頭，恐怕做錯了生意，折了重本，看不上眼。”을 인용함.《老乞大》에“似這一等經緯不一樣，織的又鬆，卻不好。買主是看不上眼，一時且難找主兒。”이 보임(老新42b3).

7. 【上用的】shàngyòngde 임금이 쓸 것, 최고급의(나라에서쓸것)《漢語大詞典》에서는《紅樓夢》第二八回：“大紅妝緞四十匹，蟒緞四十匹，各色上用紗一百匹。”을 인용함. 그밖에〔CCL〕에 外間那裏有這等上用的寶物?【14清/小說/施公案(四)】이 있음.

8. 【直不直】zhíbuzhí 값어치가 있나 없나(뵤나뵤지아니나)《漢語大詞典》에 直의 이 의미로 爲皮幣，直四十萬.((史記·平淮書))를 인용함.

9. 【價直】jià zhí 값어치 있다(갑알맛다價相等)《漢語大詞典》에서는 명사 ‘가격’의 의미로만 보았으나 주술구조로 해석할 수 있는 예는《水滸傳》第一〇三回：“我要買一張陳州來的好角弓。那陳州是東京管下，你是東京人，必知價直真假。을 들 수 있다.〔CCL〕에 보이는 今師前後所與弟子道書，其價直多少?【05東漢/史論/太平經.BT: 太平經】에서 價直는 이미 주술구조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10. 【對半分開】duìbànfēnkāi 반으로 나누다(분반[分半]하다)〔CCL〕家事對半分開，各自度日。【13明/小說/二刻拍案驚奇(上)】《漢語大詞典》에는 수록하

지 않았으나 현대중국어의 용례가 발견된다(雙周供還款將原等額本息月供對半分開加快還款, 還款者可以在基本不增加還款壓力的情況下, 以較短的時間提前償還貸款本息, 可減少利息支出。²⁵⁾).

11. 【添上】 tiānshàng 더하다(더ㅎ다) [CCL] 馬翰和王遵領了榜文, 逕到錢大王府中, 稟了錢大王, 求他添上賞錢。【10北宋/小說/話本選集1.BT: 宋四公大鬧禁魂張】 그밖에 《老乞大》에도 這等子拉, 你添上。(老新31b4)이 보인다.

12. 【討添】 tāotiān 투정하다(투정ㅎ다) [CCL] 你這個人呀, 不能給你面子的, 吃了還要討添, 現在沒得喝了, 等你說完, 才給你喝。【15民國/小說/大清三傑(上)】 《漢語大詞典》에는 수록하지 않았다. 현대중국어에는 浙江 紹興 방언에 보인다(看了最近一期關於袁立的專訪, 知道了“討添”這個詞兒, 是她家鄉的方言, 大意是, 小孩子吃好吃的東西, 一碗就好, 不能再伸手要第二碗。²⁶⁾).

13. 【一併】 yībìng 모두(모도) [CCL] 來旨悉從改易, 並交割三鎮詔書, 初二日早, 方欲坐朝, 遣來使還, 一併持去, 忽報初一日夜有兵馬在城外作鬧, 本朝不知來因, 繼聞輒至大【10北宋/小說/大金吊伐錄】 《漢語大詞典》宋秦觀《元日立春三絕》之一: “直須殘臘十分盡, 始共新年一併來。”

14. 【換換】 huànhuàn 줌 바꾸다(맞고다) 《漢語大詞典》에 ‘바꾸다’는 의미의 예로 換, 易也。《說文》을 들고 있다. [CCL]에 중첩형이 처음 보이는 예문은 我和你換換, 我和你換換。【13明/小說/西遊記(下)】이다.

15. 【狠好】 hěnhǎo 매우 좋다(ㄴ장도타) ‘狠’이 정도부사로 쓰인 예로 《漢語大詞典》에서는 這家子遠得狠哩! 相去有五七千裏之路。《西遊記》를 들고 있다. 《老乞大》에도 這麼的呢, 狠好, 我也要去賣這幾箇馬。這馬上駝著的些微幾疋毛藍布, 一併都是要賣的。(老新3b1)가 보인다.

16. 【剩的】 shèngde 남은 것(남은 것) 《漢語大詞典》에서 이러한 의미로 쓰인 예로 一屠晚歸, 擔中肉盡, 止有剩骨。《聊齋志異·狼三則》을 들고 있다. [CCL]에 宋四公走到五人面前, 見有半掇兒吃剩的酒, 也有果菜之類, 被宋四公把來吃了。【10北宋/小說/話本選集1.BT: 宋四公大鬧禁魂張】이 보인다.

25) <http://finance.cctv.com/20080508/100883.shtml> 참조.

26) http://blog.sina.com.cn/s/blog_4a85c97a010084gz.html 참조.

17. 【欠的】qiànde 모자라는 것 (모즈란 것) 《漢語大詞典》에서 이러한 의미로 쓰인 예로 萬事俱備, 只欠東風。《三國演義》를 들고 있다. [CCL] 他們都是見采, 分文不欠的。【13明/小說/喻世明言(下)】

18. 【一倍】yībèi 갑절(갑절) [CCL] 關市之租府庫之徵粟什一斯與之事此四時亦當一倍貨矣, 【03戰國/管子.BT: 管子】

19. 【大發財】dàfácai 큰 돈을 벌다(굉장히하다) 發財는 《漢語大詞典》에 《禮記·大學》: “仁者以財發身, 不仁者以身發財。” 鄭玄注: “發, 起也。言仁人有財則務於施與以起身成其令名, 不仁之人有身貪於聚斂以起財務成富。”를 인용했다. ‘大發財’의 [CCL]용례는 問了問鄰右之人, 方知趙大發財了, 如今都稱“趙大官人”了。【14清/小說/七俠五義(上)】이다.

20. 【湊斂】còuliǎn 추렴하다(추렴하다) 《漢語大詞典》과 [CCL]에 보이지 않음. 현대 중국어 어료에는 간헐적으로 보임. 우선 구로 사용되는 경우는 다음의 예문을 들 수 있음: 父母心痛兒子, 東拼西湊斂了十幾萬元, 把兒媳偷渡到兒子身邊。하나의 단어로 사용된 예로는 哥努力賺錢湊斂葬費去了。²⁷⁾ 河北 鹿泉 民間故事的 예로는 話語剛落, 王義英就咽氣了, 王洛興給當地村莊的老鄉磕了幾個頭, 湊斂了幾文錢, 將自己父親的屍體燒成骨灰。在焚燒屍體時, 他看見父親的手足一伸一縮, 象訴說什麼冤屈, 他心如刀絞, 掉下了仇恨的淚水。²⁸⁾가 있음.

21. 【兌銀子】duìyínzi 은의 무게를 달다, 환전하다(은뜨다) 《漢語大詞典》에 ‘用天平稱銀子’로 풀이하고 예로 兌准(稱准, 秤足); 兌頭(零頭, 稱兌金銀中的小差額); 兌銀子 등을 들고 있음. [CCL]莊薛公公那裏擺酒, 來家只怕要下午時分, 又聽見會下應二叔, 今日兌銀子, 要買對門喬大戶家房子, 那裏吃酒罷了。【13明/小說/金瓶梅崇禎本.BT: 金瓶梅】한편 銀子是《朱子語類》卷一三〇: “傅欽子聞其貧甚, 懷銀子見他, 欲以賙之。”에 보임.

22. 【改兌】gǎiduì 고쳐 달다 (곳쳐뜨다) 《漢語大詞典》에서는 명대 시행된 兌運法의 하나인 ‘改兌’만 들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용법은 은의 무게를 고쳐단다는 의미임. [CCL]에도 이러한 용례는 안보임(제4장 풀이 참조).

23. 【補秤】bǔchèng 은을 달 때 저울의 축을 채우다(저울축치오다) [CCL] 這

27) <http://bbs.voc.com.cn/topic-2657147-1-1.html> 참조.

28) 新華網河北頻道 2006-10-12 참조.

是一宗補秤的銀子，不是正餉，要歸交內庫。【14清/小說/彭公案(一)】 그밖에 《彭公案》第26回〈論英雄激惱〉：黃三太賭閑氣搶劫補秤銀。이 있음. 《漢語大詞典》에는 미수록.

24. 【賒帳】 shēzhàng 외상기록, 외상(외자+장欠帳) 《漢語大詞典》에는 《古今小說·新橋市韓五賣春情》：“我入城收拾機戶賒帳，回來算你日逐賣帳。”을 인용함. [CCL]에는 清代 이후의 어료에만 보임.

25. 【流水賬】 liúshuǐzhàng 출납부(홀림+장) 《漢語大詞典》에는 《紅樓夢》第四回：“賈璉又命林之孝將那二百銀子入在流水帳上，分別添補，開消過去。”을 들고 있으나 [CCL]에는 보이지 않음.

26. 【虧本】 kuīběn 밑지다(맞지다) 《漢語大詞典》에는 현대의 예(艾蕪《人生哲學的一課》)만 들고 있음. [CCL]에는 但這個價錢實在虧本了. 【12元/口語/老乞大新釋.BT: 老乞大新釋】 등의 예가 보임.

27. 【完帳】 wánzhàng 셈이 맞다, 결산이 맞다(험맞다清帳) 《漢語大詞典》과 [CCL]에 유사예문이 있으나 상업용어로 쓰인 예는 없다.

28. 【另補】 lìngbǔ 따로 채우다(쓰로치오다) 《漢語大詞典》과 [CCL]에 유사예문이 있으나 상업용어로 쓰인 예는 없다.

29. 【吮吃】 shǔnchī 떠서 먹다, 이익을 뽑아 먹다(써혀먹다) 《漢語大詞典》과 [CCL]에 용례가 보이지 않음. 현대중국어에서는 아기가 젖을 빨아 먹는데 이 단어를 사용함(有人認爲小嬰兒吮指是由於出生後吮吃瓶奶，吮吸動作沒有得到滿足，所以出現吮指，這也有可能.).

30. 【財主】 cáizhǔ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 또는 상인(장지) 《漢語大詞典》과 [CCL]에 가장 이른 용례는 다 南朝·宋·劉義慶《世說新語·故事》의 陳仲弓爲太丘長，有劫賊殺財主者，捕之.임.

31. 【本錢】 běnqián 밑천, 본전(밋천) 《漢語大詞典》은 唐·韓愈《處州孔子廟碑》：“又爲置講堂，教之行禮，肄習其中。置本錢廩米，令可繼處以守。”를 인용함. [CCL]의 전형적인 예문으로 便是半路上出家的一般，買賣行中一發不是本等伎倆，又把本錢消折去了. 【10北宋/小說/話本選集1.BT: 錯斬崔寧】 들 수 있음.

32. 【掙錢】 zhèngqián 돈 벌다(돈버으다) [CCL]의 가장 이른 용례는 卻說亡八惱恨玉姐，待要打他，倘或打傷了，難教他掙錢；待不打他，他又戀著王小三。【12元/小說/話本選集2.BT:玉堂春落難逢夫】이나, 《漢語大詞典》에서는 현대의 馮玉忠 《形勢問題對話錄》: “一個民族不怕掙錢多, 就怕掙錢易。”를 인용함.

33. 【文契】 wénqì 상업용 문서(문서) 《漢語大詞典》에서 이미 《後漢書·樊宏傳》: “其素所假貸人間數百萬, 遺令焚削文契.”의 예를 들고 있음.

34. 【借契】 jièqì 빚 문서, 차용증(빚문서) [CCL]說得成時, 把你二十兩這紙借契先奉還了, 媒禮花紅在外。【13明/小說/今古奇觀(下)】 《漢語大詞典》에는 明·范受益, 王鏐 《尋親記·遣役》: “立借契人周羽, 爲因缺欠使用, 情願借到張處白銀。”을 인용함.

35. 【債樁】 zhàizhuāng 빚 구덩이, 또는 빚이 많은 사람(빚꾸러이) 《漢語大詞典》과 [CCL]에 보이지 않는다. 대만의 《重編國語辭典(修訂本)》에 滿身債務的人。《金瓶梅詞話》第十九回: 「我早知你這王八砍了頭是個債樁, 就瞎了眼, 也不嫁你這中看不中吃的王八。」或稱爲「債殼子」。라 했다.

36. 【討債】 tǎozhài 빚을 재촉하다(빚지촉하다) [CCL]에는 明代의 소설이 가장 이른 용례로 나타나나 《漢語大詞典》에는 元·關漢卿 《竇娥冤》第二折의 “若是再來討債時節, 教我怎生見他?”를 들고 있다.

37. 【還當】 huándāng 전당 잡힌 것을 청산하다(전당부르다) [CCL] 那四個人慌了手脚, 寓處擄一擄, 只得四五件綢緞衣服, 還當得幾兩銀子, 其餘一無所有。【14清/小說/儒林外史(上)】 《漢語大詞典》에는 수록하지 않았다.

38. 【子母債】 zǐmǔzhài 별도의 이자가 있는 빚(별리잇는빚) 《漢語大詞典》과 [CCL]에 보이지 않는다. 현대 중국어 용례로 外高橋演繹“子母連環債”(中國房地產報 2009-9-14)이나 “由於產業鏈中大都是賒銷制, 大發行商也被底下的小批發商或零售商拖欠。零售商與讀者之間是現金交易, 現金到了零售商手裏卻不一定及時返款, 賬期被一個環節、一個環節地拖長, 有時基層的小書店主因經營不善、卷款逃跑也是常事。此時大經銷商就把風險轉嫁到出版商身上, 出版商又將債務傳導給印刷廠……“發行商欠出版商錢, 出版商就欠印刷廠錢, 這是‘子母債’。”(追債: 一個傾家蕩產的出版人的出版生態²⁹⁾) 참조.

29) <http://home.donews.com/donews/forum/30/2006-02/08/592620.html>

39. 【月利錢】 yuèliqián 달별로 계산하는 이자(달서별리) [CCL]蕭 三大雖然肯借，卻要四分起息，先付三個月利錢，又要打個八扣。【14清/小說/九尾龜(四)】《漢語大詞典》에는 미수록. '利錢'은 《水滸傳》第三八回：“宋江道：‘只用十兩銀子去取，再要利錢麼？’李逵道：‘利錢已有在這裏了，只要十兩本錢去討。’”에 보인다. 현대의 용례로는 ‘雖然不是太貴，可常年喝的話，我那麼點月利錢可是不夠買的，要是白喝不給錢的話，別人還以為我蠻不講理呢，所以萬萬不可.’³⁰⁾가 있다.

40. 【當舖】 dàngpù 전당포(던당푸즈) 《漢語大詞典》에서는 清代의 陳康祺 《燕下鄉脞錄》卷七：“和坤通薊地方，當舖、錢鋪資本十餘萬，與民爭利。”을 인용했으나 [CCL]에서는 明대의 어료인 絕早起來，叫權忠到當舖裏去賃了一頂儒巾，一套儒衣，整備拜堂。【13明/小說/二刻拍案驚奇(上)】이 보인다.

41. 【稅上】 shuìshàng 미상(稅所) 《漢語大詞典》에는 없고 [CCL]에도 해당 용례가 없음.

42. 【收稅】 shōushuì 세를 건다(收稅하다) 《漢語大詞典》에는 없고 [CCL]에 應諸道商稅，仰逐處將省司合收稅條。【10北宋/史書/舊五代史.BT: 舊五代史】가 보인다.

43. 【上稅】 shàngshuì 세금을 내다(세맞치다) [CCL]我去上稅送來與你。【12元/口語/老乞大新釋.BT: 老乞大新釋】 《漢語大詞典》에는 현대의 예(老舍 《四世同堂》)만 들고 있다.

44. 【雇了】 gùle 빌다, 임차하다(삿내다賃了) [CCL] 邀了幾個朋友，雇了一只船，即時拜了父母，辭別兄嫂。【12元/小說/話本選集2.BT: 玉堂春落難逢夫】 《漢語大詞典》에는 현대의 예(出錢租賃。如：雇請(出租；租賃；雇傭)；雇來回車(比喻做事考慮周到，事前已爲事情的結局作好了安排)만 들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譯語類解·補》의 표제어와 풀이 및 상관 예문들은 이후 필자가 구상하고 있는 ‘후기 근대 중국어 상업용어사전’에 수록할 예정이다.

사전편찬의 견지에서 본다면 《漢語大詞典》과 대비하여 표제어의 수록 여부와 의미항의 수록 여부 및 풀이의 오류 등으로 분류하여 서술할 수 있다. 이를테면 ‘討添’, ‘假估’ 등의 단어들은 《漢語大詞典》에 누락되었으며, ‘改兌’, ‘完帳’ 등의 단어

30) <http://www.book90.com/files/article/html/95/95478/3592912.html>

는 비록 수록은 하였으나 《譯語類解·補》에 적시한 의미항이 누락되어 있다. 한편 '掙錢'과 '虧本' 등은 명청대에 이미 출현하였으나 《漢語大詞典》에서는 현대의 용례만 들고 있다. 이 부분은 이후 기회가 된다면 다시 전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VI. 결어

본고는 《譯語類解》 상업어휘의 후속 연구로 《譯語類解·補》에 수록된 40여 개의 상업관련 표제어를 연구했다. 《譯語類解》 이후 조선시대에 간행된 유해류 역학서는 《老乞大》 등의 회화서화 짝을 이루어 북방 중국어 구어를 학습하기 위해 간행된 분류 대역 어휘집이다. 17세기 이래 200여 년 간 9종 이상의 판본이 현전하며 이들 자료를 통한 후기 근대중국어의 어휘를 계통적으로 분류하고 연구하는 일은 중국어 어휘사나 한중 언어 발전사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서론에서는 유해류 역학서의 연구의의와 자료를 소개했으며, 2장에서는 연구방법과 범위를 언급했다.

본문에 해당하는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譯語類解·補》 상업어휘의 구성과 전승관계 및 어휘풀이를 진행했다. 구성에서의 특징은 문법적으로 구(句)나 지칭화 등의 표현으로 다수 채록된 점을 발견했으며 전승관계에서는 《同文類解》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方言集釋》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4장에서는 대형 辭書에 실리지 않았거나 현대에 상용하지 않는 몇몇 어휘를 풀이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譯語類解·補》의 상업어휘 전체를 대상으로 역대 및 현대의 예문을 확보하고 《漢語大詞典》 등을 활용해 풀이했다.

아울러 본문에서는 《譯語類解·補》의 상업어휘의 성격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 이들 표제어들이 당시 중국의 북방 구어어휘를 충실히 수록했고, 변화하는 상업의 실상을 '典當'류 어휘와 銀本位制 관련 어휘의 增補로 반영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가 근대중국어의 상업어휘 연구와 유해류 역학서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參考文獻】

1. 類解類 譯學書 原典

- 《同文類解》 홍문각, 1995(洪允杓 해제)
 《韓漢清文鑑》 연희대학교 동방학 연구소, 1956(閔泳珪 해제)
 《譯語類解》, 《譯語類解·補》 아세아문화사, 1974(李基文 해제)
 《蒙語類解》(《蒙語類解補編》), 《捷解蒙語》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06(宋基中 해제)
 《方言集釋》 일본학 제7집,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8
 《四本對照倭語類解》(《倭語類解》 1781, 《和語類解》 1837, 《日語類解》 1912, 《朝鮮偉國字彙》 1838), 제이앤시, 2004(鄭光 해제)
 《華語類抄》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4(全基廷 해제)
 《漢語抄》 홍문각, 1955(洪允杓 해제)

2. 研究書, 論文

- 곽재용 <類解類 譯學書의 '身體部 語彙 研究>; 《한글》 제228호, 1995
 김영일 <《譯語類解》 속의 우리말 難解語>; 《語文學》 通卷 第80號, 2003. 6
 김은정 강순계 <朝鮮時代 外國語學習書를 中心으로 본 服食名稱 研究>; 《服食》 Vol.56, No.6, 2006
 박재연 교점 <노걸대·박통사 원문·언해 비교자료>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3
 박찬식 <類解類 譯學書 '性情部 語彙의 考察>; 《한말연구》 Vol.23, 2008
 박찬식 <類解類 譯學書의 '宮室部 語彙의 考察>; 《한말연구》 Vol.18, 2006
 박찬식 <類解類 譯學書 '人品部 語彙의 考察>; 《겨레어문학》 Vol.36, 2006
 심소희 <《譯語類解》小考>; 《中國語文學論集》 第4號, 1992. 8
 양오진 <早期 中國語辭典의 種類와 特徵에 對하여>; 《中國學報》 Vol.50, 2004
 연구동 <近代國語의 낱말밭(Semantic Field) - 類解類 譯學書의 部類排列順序를 中心으로>; 《言語學》, Vol.28, 2001
 연구동 <漢字 特殊 字形 研究 - 類解類 譯學書를 中心으로>; 《言語研究》 Vol.15, 1997
 연구동 <譯語類解 現存本에 對한 一考察>; 《國語學》 第26輯, 1995. 12
 연구동 <近代國語 語彙集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1996
 정광 <類解類 譯學書에 對하여>; 《國語學》 Vol.7, 1978
 정광 <類解類 譯學書에 對하여>; 《國語學》 第7輯, 1978

- 王洪湧《先秦兩漢商業詞彙、語義系統研究》華中師範大學 博士論文 2006
- 蔣紹愚《近代漢語研究概要》北京大學出版社 2005
- 梅家駒等編《同義詞詞林》上海辭書出版社 1983
- 李泰洙《〈老乞大〉四種版本語言研究》語文出版社 2003
- 姜勇仲《〈朱子語類〉詞彙研究》中國 北京大學 博士論文 2006
- 姜勇仲(a)〈釋“麩糟”〉:《周口師範學院學報》2008/01
- 姜勇仲(b)〈語彙系統 研究의 中國歷代 商業語彙 研究方法〉:《中國文學研究》2008, Vol.36
- 姜勇仲(a)〈朝鮮時代 類解類 譯學書 商業語彙 收錄樣相과 對比〉:《中國言語研究》2009, Vol.30
- 姜勇仲(b)〈朝鮮時期《譯語類解》所見的明清時期商業詞彙研究〉:《第四屆漢語史研討會暨第七屆中古漢語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北京語言文化大學, 2009.8
- 姜勇仲(a)〈조선시대 역학서를 통해 본 중국어 분류어휘 교육의 의의 - 《老乞大》와 유해류 역학서의 상업어휘를 중심으로〉:《중국어교육과 연구》2010, Vol.12
- 姜勇仲(b)《〈譯語類解〉‘買賣’門 商業語彙의 분류와 풀이》:《中國文學研究》2010, Vol.41

부록: CCL(北京大學漢語語言學研究中心) 고대중국어
데이터 베이스 목록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index.jsp?dir=gudai)

●01周

春秋/今文尙書/詩經/周易/

●02春秋

國語/老子/論語/墨子/孫子/左傳/

●03戰國

楚辭/楚辭補注/大學/公羊傳/谷梁傳/管子/鬼谷子/韓非子/禮記/呂氏春秋/孟子/商君書/孝經/荀子/晏子春秋/儀禮/逸周書/中庸/周禮/莊子/縱橫家書/

●04西漢

【(史書)史記/戰國策/ 】【(諸子)法言/淮南子/賈誼新書/

●05東漢

【(佛經)佛經選/佛說般舟三昧經/佛說四十二章經/ 】【(古詩)古詩十九首/孔雀東南/ 】【(史論)風俗通義/論衡/太平經/新論/ 】【(小說)獻帝春秋/趙飛燕外傳/

●06六朝

【(道論)抱朴子/ 】【(佛經)北涼譯經/北魏譯經/東晉譯經/鳩摩譯經/劉宋譯經/西晉譯經/西秦譯經/支謙譯經/ 】【(佛語彙)寶藏論/ 】【(詩文)曹操詩/陶淵明集/ 】【(史書)三國志/三國志裴注/ 】【(小說)百喻經/九州春秋/穆天子傳/山海經/世說新語/搜神后記/魏晉世語/西京雜記/ 】【(議論)文列子/文心雕龍/

●07隋

信心銘/

●08唐

【(佛經)禪源詮序/地藏本願/佛說譬喻/華嚴經唐/楞伽師資/療痔病經/入唐求法/首楞嚴經/心經法成/心經法月/心經共利/心經玄奘/心經智慧/原人論/ 】【(佛語彙)黃檗山斷際禪師傳心法要/筠州洞山悟本禪師語彙/六祖壇經/馬祖語彙/神會語彙/小止觀/鎮州臨濟慧照禪師語彙/ 】【(史書)北齊書/ 】【(唐詩)白居易詩/陳子昂詩/崔顥詩/杜甫詩/杜審言詩/寒山詩/李白詩/李賀詩/李商隱詩/拾得詩/唐詩三百首/王梵志詩/王維詩/薛濤詩/ 】【(小說)大唐創業起居注/大唐新語/霍小玉傳/明皇雜錄/南岳小泉/隋唐嘉話/唐國史補/五代新說/野朝餘載/游仙窟/

●09五代

敦煌變文集新書/ 十六國春秋別本/ 祖堂集/

●10北宋

【(佛語彙)禪林僧寶傳/ 】【(史書)舊五代史/新五代史/資治通鑑/ 】【(宋詞)李煜詞/柳永詞/歐陽修詞/秦觀詞/蘇軾詞/晏几道詞/晏殊詞/ 】【(宋詩)宋詩一百首/ 】【(小說)大金吊伐錄/大宋宣和遺事/話本選集1/江南野史/靖康傳信錄/靖康紀聞/遼志/夢溪筆談/南北朝雜記/南遷錄/南征錄/三國雜事/宋朝事實/太平廣記/五代春秋/五代史闕文/五國故事/西夏事略/湘山野錄/ 】【(語彙)朱子語類/

●11南宋

【(佛語彙)古尊宿語彙/無門關/五燈會元/ 】【(詩詞)李清照詞/辛棄疾詞/元好問詞/朱敦儒詞/朱淑真詞/

●12元

【(口語)老乞大新釋/老乞大諺解/ 】【(戲劇)倩女離魂/西廂記雜劇/ 】【(小令散曲)元人小令/元散曲/ 】【(小說)話本選集2/

●13明

【(小說)包公案/初刻拍案惊奇(上)/初刻拍案惊奇(下)/大同紀事/東漢秘史/二刻拍案惊奇(上)/二刻拍案惊奇(下)/封神演義(上)/封神演義(下)/封神演義(中)/皇明本紀/皇明紀略/皇明奇事述/皇明盛事述/皇明昇典述/姜氏秘史/今古奇觀(上)/今古奇

觀(下)/金瓶梅崇祿本/警世通言(上)/警世通言(下)/兩晉秘史/清暑筆談/三寶太監西洋記(二)/三寶太監西洋記(三)/三寶太監西洋記(四)/三寶太監西洋記(一)/三國演義(上)/三國演義(下)/三國演義(中)/蜀王本紀/水滸全傳(上)/水滸全傳(下)/水滸全傳(中)/隋唐野史/萬歷野獲編/五代秘史/西游記(上)/西游記(下)/西游記(中)/夏商野史/醒世恒言(上)/醒世恒言(下)/醒世姻緣傳(上)/醒世姻緣傳(下)/醒世姻緣傳(中)/續英烈傳/野記/英烈傳/喻世明言(上)/喻世明言(下)/云中紀變/云中事記/周朝秘史/

●14清

【詩詞】納蘭詞/ 【小說】八仙得道(上)/八仙得道(下)/狄公案/狄青演義/東度記(上)/東度記(下)/東南紀事/東周列國志(上)/東周列國志(下)/東周列國志(中)/儿女英雄傳(上)/儿女英雄傳(下)/二十年目睹之怪現狀(上)/二十年目睹之怪現狀(下)/二十年目睹之怪現狀(中)/官場現形記(上)/官場現形記(下)/海公大紅袍傳/海公小紅袍傳/海國春秋(上)/海國春秋(下)/紅樓夢(上)/紅樓夢(下)/紅樓夢(中)/呼家將/濟公全傳(二)/濟公全傳(三)/濟公全傳(四)/濟公全傳(一)/鏡花緣(上)/鏡花緣(下)/九尾龜(二)/九尾龜(三)/九尾龜(四)/九尾龜(一)/康熙俠義傳(上)/康熙俠義傳(下)/康雍乾間文字之獄/老殘遊記/老殘遊記續/聊齋志異(上)/聊齋志異(下)/綠野仙踪(上)/綠野仙踪(下)/綠野仙踪(中)/滿清外史/木蘭奇女傳/南朝秘史/孽海花(上)/孽海花(下)/彭公案(二)/彭公案(三)/彭公案(四)/彭公案(一)/七劍十三俠(上)/七劍十三俠(下)/七俠五義(上)/七俠五義(下)/乾隆南巡記(上)/乾隆南巡記(下)/清代野記/清宮禁二年記/儒林外史(上)/儒林外史(下)/三俠劍(上)/三俠劍(下)/三俠劍(中)/施公案(二)/施公案(三)/施公案(四)/施公案(一)/說唐全傳(上)/說唐全傳(下)/說唐全傳(中)/說岳全傳(上)/說岳全傳(下)/隋唐演義(上)/隋唐演義(下)/太平天國戰記/外交小史/文明小史/西夏書事/西巡回鑾始末/熙朝新語/俠女奇緣(上)/俠女奇緣(下)/湘軍志/小八義(上)/小八義(下)/小五義(上)/小五義(下)/小五義(中)/綉雲閣(上)/綉雲閣(下)/續濟公傳(上)/續濟公傳(下)/續濟公傳(中)/薛剛反唐/鴉片事略/楊家將/閩微草堂筆記(上)/閩微草堂筆記(下)/張文襄公事略/趙太祖三下南唐/

●15民國

【小說】大清三杰(上)/大清三杰(下)/大清三杰(中)/貂蟬史演義/古今情海/貴妃史演義/漢代宮廷史/洪憲官閨史演義/后漢演義/兩晉演義/留東外史/留東外史續集/滿清興亡史/民國演義/民國野史/明代官閨史/明史演義/南北史演義/奴才小史/乾隆休妻/秦朝野史/秦漢演義/清朝秘史/清朝前紀/清朝三百年史演義/清代宮廷史/清史演義/上古秘史/十叶野聞/順治出家/宋代官閨史/宋代十八朝宮廷史/宋史演義/隋代官閨史/唐史演義/同治嫖院/五代史演義/武宗逸史/西漢野史/西施史演義/西太后史演義/雍正劍俠圖(上)/雍正劍俠圖(下)/雍正劍俠圖(中)/元代宮廷史/元代野史/元史演義/昭君史演義/

●[大藏經]第01~12卷/

●[全宋詞]全宋詞(第一冊)~(第七冊)/

●[全宋詞]全宋詞/

●[全唐詩]全唐詩1~5/

●[全元曲]散曲, 戲文, 雜劇/

●[諸子百家-兵家]——八陣總述/百戰奇略/翠微先生北征泉/何博士備論/虎鈴經/紀效新書/將苑/歷代兵制/六韜/三略/三十六計/神機制敵太白陰經/守城泉/司馬法/素書/唐太宗李衛公問對/衛公兵法輯本/尉繚子/握奇經/吳子兵法/曾胡治兵語泉/

●[諸子百家-道家]——測字秘牒/純陽演正字佑帝君既濟真經/洞天福地記/關尹子/海內十洲三島記/鵬冠子/黃帝陰符經/黃庭經/六十甲子本命元辰歷/人倫大統賦/悟真篇/陰鸞文/玉皇經/月波洞中記/云笈七籤(第二部)/云笈七籤(第三部)/云笈七籤(第四部)/云笈七籤(第一部)/

●[諸子百家-法家]鄧析子/慎子/

●[諸子百家-蒙學]百家姓/鑿略安注/了凡四訓/列女傳/千字文/三字經/聲律啟蒙/圍爐夜話/小學詩/訓蒙駢句/顏氏家訓/幼學瓊林/增廣賢文/朱子家訓/

●[諸子百家-儒家]傅習泉/春秋繁露/大學章句/大學章句集注/賈誼新書/孔子家語/劉向說苑/論語集注/孟子集注/鹽鐵論/中鑿/中庸集注/

●[諸子百家-十三經]爾雅/儀禮/周禮/

●[諸子百家-史類]大唐傳載/歸田泉/國語/金樓子/陸賈新語/史通通釋/一貫問答/

●[諸子百家-醫家]百家針灸歌賦/黃帝八十一難經/黃帝內經靈樞/黃帝內經素問/神農本草經/

【中文提要】

本文繼《譯語類解》的商業詞彙研究而作的有關《譯語類解·補》商業詞語研究。衆所周知，《譯語類解》以及後來在朝鮮時期出版的‘類語類譯學書’就是配《老乞大》、《朴通事》等的會話書使用的漢語分類詞典。至今還保留著九種以上版本的‘類語類譯學書’可以說是做後期近代漢語口語詞研究和韓漢語言接觸史以及漢語分類詞典的研究的有着重要意義的研究材料。

在第一章，介紹了研究‘類語類譯學書’的意義和相關材料。第二章提到了研究方法和範圍。

第三章，分別進行了《譯語類解·補》所收錄的商業詞彙的構成和不同‘類語類譯學書’之間的傳承關係。詞語構成上的顯著的特點爲《譯語類解·補》收錄了一些詞組和指稱化的形式。傳承關係上的特點就是《譯語類解·補》受到《同文類解》的影響最明顯，而對後來的《方言集釋》影響最大。在第四章，本文挑選從中的五個疑難詞語，並進行了考釋工作。

第五章，主要進行了《譯語類解·補》全部商業詞彙的整理工作。其中還包括給每一個詞目找到相關例句。行文中依據的主要語料就是《漢語大詞典》和北京大學漢語語言學研究中心的CCL語料庫(古代漢語部分)。「類語類譯學書」的最大的不足就是這些書都不帶例句，因此可以說這樣的工作就是對‘類語類譯學書’的具有實踐意義的後續研究。

【主題語】

《역어유해·보》(Yiyuleijie-bu), 상업(Commerce), 어휘(Vocabulary), 분류(Classification), 풀이(Explanation), 근대중국어(Modern Chinese)

《譯語類解·補》，商業，詞彙，分類，考釋，近代漢語

투고일: 2011.10.20 / 심사일: 2011.10.24~11.6 / 게재확정일: 2011.11.10